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안정세

5개월째 2%대...가자미·참외·양상추 등 농수산물도 여전히 높아

지난달 광주·전남의 소비자 물가가 소폭 상승했지만 5개월째 2%대를 유지해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까지 폭등했던 채소류의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달보다 하락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는 12.5%나 올라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까지 폭등했던 채소류의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달보다 0.1%,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상승했다.

하지만 채소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와 농수축산물물은 전달보다 0.1%, 1.0%씩 하락했다.

채소류 값이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신선식품지수도 전달보다 2.1% 하락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는 12.5%나 올라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생활물가에 반영되는 농수축산물의 경우 지난해 양상추(-29.6), 브로콜리(-24.9), 수박(-22.1), 감자(-20.2), 가지(-19.4), 토마토(-18.4), 피망(-18.2), 참외(-15.0) 등이 큰 폭 내림세를 보였다.

하지만 전년보다는 가자미(71.0%), 참외(70.0%), 양상추(62.0%), 무(59.7%), 토마토(59.5%), 수박(33.5%) 등 농수축산물의 상승세는 여전히 높았다.

전남지역의 6월 소비자물가는 전달보다 0.2% 내리고 지난해보다 2.7% 상승했다.

전남 농수축산물물은 전달보다 2.6% 하락, 생활물가지수는 0.5% 하락, 신선식품지수는 4.6% 하락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는 농수축산물은 8.3%, 신선식품지수는 14.5%나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양파(-27.2%), 참외(-26.0%), 브로콜리(-24.7%), 풋고추(-24.2%) 등 채소류가 지난해 큰 폭의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무(79.4%), 조기(52.9%), 열무(48.5%)를 비롯해 금반지(20.6%), 연탄(20.3%), 취업학원비(18.6%) 등 주요 생활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크리스탈·코스사주 장식 샌들

1일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여성들이 크리스탈·코스사주 등이 장식된 다양한 샌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포도주·위스키 등 주류 발암성 물질 기준 마련

이르면 올해 말부터 포도주를 포함한 대다수의 주류에 발암성 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의 기준을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만간 포도주, 과실브랜디, 리큐르, 청주·약주, 일반증류주, 위스키 등에 대해 에틸카바메이트의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은 캐나다와 체코의 관련기준에 준해 국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포도주 0.03mg/kg, 과실브랜디·과실주 등 리큐르 0.4mg/kg, 청주·약주 0.2mg/kg, 일반증류주 0.15mg/kg, 위스키 0.15mg/kg로 해당물질의 검출 기준이 설정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포도주뿐 아니라 과실주, 위스키 등 에틸카바메이트가 검출되는 모든 주류에 기준 설정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에틸카바메이트가 검출되지 않는 소주, 맥주, 탁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LPG 공급價 큰폭 인상

SK가스 등 가정·차량용 kg당 최고 100.91원 ↑

액화석유가스(LPG)의 공급가격이 7월 공급분부터 큰 폭으로 오른다.

LPG 수입·판매사인 SK가스는 7월 각 충전소에 공급하는 가정용 프로판 가스와 차량용 부탄가스 가격을 kg당 100.91원씩 인상한 1185.41원과 1579.80원으로 결정했다.

공급가격이 오르면서 차량용 부탄가스는 충전소에서 ㄹ 당 922.6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가정용과 차량용 LPG의 이번달 대비 인상은 각각 9.30%와 6.82%다.

E1은 각 충전소에 공급하는 가정용 프로판 가스의 7월 가격을 kg당 55

원(5.07%) 올린 1139원으로, 차량용 부탄가스 가격을 kg당 45원(3.04%) 인상한 1523원으로 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 LPG 가격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소폭 내렸으나 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근 평균 환율이 1달러에 1200원대를 웃돌아 공급 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LPG 수입업체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국제 LPG 가격을 통보하면 통상 매월 말에 수입 가격과 환율, 각종 세금, 유통 비용 등을 반영해 다음 달 공급가격을 결정한다.

/연합뉴스

광주신보 신용보증액 1000억원 돌파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올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1일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1월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신용보증공급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또 설립 이후 현재까지 광주지역 3만7540개 업체에 모두 8388억원대의 신용보증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의 경우 6월말 현재 210억원을 기록, 지원실적 전국 4위에 올랐다.

김재욱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금융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증공급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작년 육아휴직 3만5천명

7년새 10배 늘어 사상최대...남성도 증가세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전국에서 출산 장려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육아 휴직자가 사상 처음으로 3만명을 돌파했다.

육아 휴직자 가운데 남성은 500명 선을 넘어서 과거와 달리 남성도 자녀 양육을 위해 휴가를 내는 분위기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 휴직자 수는 3만5400명으로 전년의 2만9145명보다 6255명 늘었다. 2002년 육아 휴직자 수가 3763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7년 만에 10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육아 휴직자는 2003년 6816명,

2004년 9304명에 불과했으나 2005년 1만700명, 2006년 1만3440명, 2007년 2만1185명으로 급격히 증가해왔다.

육아 휴직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는 휴직 기간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대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매달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남성 육아 휴직자 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남성 육아 휴직자는 502명으로 전년의 355명에 비해 147명 증가했다. 숫자 자체로는 크지 않지만 증가 폭만 보면 25%가 넘는다.

남성 육아 휴직자는 2002년 78명에서 2003년 104명, 2004년 181명, 2005년 208명, 2006년 230명, 2007년 31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여성 육아 휴직자는 2007년 2만 875명, 2008년 2만8천790명에 이어 지난해 3만4898명을 기록했다.

정부의 육아 휴직 지원금액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육아 휴직 지원금은 1397억원으로 처음으로 1000억원대를 돌파했다. 2008년의 984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413억원이 늘어났다.

육아 휴직 지원금은 2002년 30억원에 불과했으나 2003년 105억원, 2004년 208억원, 2005년 282억원, 2006년 345억원, 2007년 609억원으로 급증해왔다.

/연합뉴스

요일제 자동차 보험 출시 한달 가입 미미

요일제 자동차보험이 시행 한 달째를 맞고 있지만 가입 실적이 미미해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4개 손해보험사가 지난해 초부터 요일제 자동차보험 상품을 내놨지만 지난해 29일까지 가입한 보험 계약건수는 477건에 불과하다.

지난달 삼성화재만 184건의 요일제 보험 상품을 판매했을 뿐 다른 보험사들은 대부분 가입자 수가 두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이는 '녹색 보험'으로 분류되는 자전거보험이 지난해 6월 출시 후 한 달 만에 900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한 것에 비해서도 훨씬 뒤떨어지는 성적이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82) 227-9940 순천점 061) 752-9940
 동점 05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울산점 063) 851-2422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세기보청기

1588-999-999-722-1111